

# 2022 남산초이스

2022  
NAMSAN CHOICE

강민수  
방지원  
황민왕



*Kang minsoo*

강민수의 독경

2022. 11. 18 Fri 20:00  
11. 19 Sat 15:00

*Bang jikwon*

방지원-동해UNIVERSE

2022. 12. 9 Fri 20:00  
12. 10 Sat 15:00

*Hwang minwang*

황민왕의 별신

2022. 12. 30 Fri 20:00  
12. 31 Sat 15:00

## 서울남산국악당

# 2022 남산초이스

## 2022 Namsan Choice

2022. 11. 18(금) ~ 12. 31(토) 금요일 20:00, 토요일 15:00  
서울남산국악당

11.18(금) 20:00 / 11.19(토) 15:00  
“강민수의 독경”

12.9(금) 20:00 / 12.10(토) 15:00  
“방지원-동해UNIVERSE”

12.30(금) 20:00 / 12.31(토) 15:00  
“황민왕의 별신”



# 강민수의 독경



# 강민수

Kang minsoo

-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 세한대학교, 목원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및 출강
- 우리소리 바라지 동인



연희자 강민수는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이 시대 마지막 유랑광대인 아버지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예능보유자 故강준섭 명인으로부터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타고난 재능에 노력이 더해져 다시래기 유일무이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전승활동과 창작음악집단 우리소리 바라지에서 타악과 소리를 맡아 타고난 예능과 현장성을 겸비한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Program

<강민수의 독경>은 이 시대 마지막 유랑광대들이 펼쳤던 단막극(놀부전 중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 다시래기 중 '경문유희')을 연희자 강민수와 우리소리 바라지의 음악으로 재구성하였고, 눈면 당달봉사, 놀부의 해학적인 연기와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를 다듬어 재탄생 시킨 악가무(樂歌舞)일체의 공연이다.

- 1 독경 전남 진도에서 출상하기 전날 밤 초상집에서 상두꾼들이 벌이는 민속놀이인 다시래기 중 '경문유희'를 강민수 연희자의 연행으로 선보인다.
- 2 단막극 놀부전 중 글 가르치는 대목
- 3 구음시나위 삼풀이, 자진모리, 엇모리, 동삼풀이로 이어지는 구음시나위는 슬픔의 정서가 주조를 이루지만 비감한 가락 사이사이 구음이 절묘하게 엇박, 정박으로 넘나들어 곧이어 들썩이는 신명으로 변주된다.
- 4 생!사고락 2 생생함이 넘치는 네 고수의 북가락이란 뜻의 신조어. 판소리 반주에 쓰이는 소리북은 섬세하면서도 무겁고 깊은 울림이 있고, 한편으론 힘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타악기이다. 이러한 소리북의 매력은 북 연주만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소리와 결합될 때만이 온전히 발현되는데, 소리를 하며 동시에 북을 치는 바라지의 연주에서 생생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 5 무취타 '무속가락으로 불고 친다'는 뜻의 <무취타巫吹打>는 사람이 살면서 늘 부대끼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의 네 감정을 표현한 타악곡이다. 경기와 진도지방의 무속장단을 활용하였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의 4악장 형식이다. 흥는 부정놀이와 당악을, 찰는 율림채와 마음조시, 곱마치로 표현했으며, 쇠와 樂은 도살풀이, 배다리, 진도푸너리장단 속에 녹여보았다.
- 6 만선 전라남도의 섬 거문도에서 불리는 뱃노래에 타악을 결합하여 풍어의 기쁨을 표현한 곡이다. 왁자지껄한 출어의 현장과 그물을 올리는 과정, 고기를 가득 싣고 만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과정이 타악과 소리, 태평소 선율 속에 활기차게 그려져 있다.



강민수의 독경을 만든 사람들

연희자 강민수  
공연단체 우리소리 바라지



특별출현 조성재(아쟁) 정광운(대금) 이준형(타악)  
예술감독 최광일(피리, 태평소) 최은혜(가야금)  
음향감독 원나경(해금) 정준태(단막극 마당쇠역)  
제작PD 정재욱  
오현주

방지원-  
동해UNIVERSE



# 방지원

Bang jiwon



- 사)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이수자
- 2022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자던 동해안별신굿 방지원<동해東海 : 신들의 바다> 연출
- 방울성 동인

전통의 본질에 기반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모토로 삼고있는 타악연주자이자 동해안 굿판의 화려행인 방지원은 전통적 미니멀리즘 소재들을 활용해 작품을 구성하며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힘과 우리악기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해왔다. 악기의 매개적 속성이 물질과 영혼을 잇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예술행위의 본령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마음을 모아 기원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어릴적 전통예술의 원형에 대한 호기심을 계기로 굿판을 찾아가 현장을 기록하고 그 예술 세계를 학습했다. 구비문학, 설화, 노래, 춤, 사상, 종교, 음악, 미술이 공존하는 다원예술인 '굿'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장르들의 경계를 무너뜨린 새로운 작품의 탄생을 방지원을 통해 기대한다.

## Program

더 좋은 작품의 창조와 예술세계의 확장을 위해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은 동시대 예술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방지원은 어쩌면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원천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높은 수준의 동해안 무속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고 발굴해 '전통적 상상력'과 '동해안 어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다. 동해안 굿판의 철학과 정서에 시의적 가치를 담아 무대화함으로써 근미래 동해안 무속예술의 비전을 제시한다.

전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그것이 결코 소멸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복잡하고 탄탄한 뼈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흩어지거나 묻힌 기억과 이야기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감각을 빌어 새로운 몸체를 얻고 실재實在하게 될 때,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망각의 껍질을 깨고 기존의 세계관을 재구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세상의 귀하고 좋은 것들은 누군가와 나누어질 때 진정으로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방지원은 동해안 지역에서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굿판의 광경들과 현장성을 고스란히 도심으로 가져와 대중들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방지원의 '동해UNIVERSE' 에서는 우리의 저변에 끊임없이 흐르며 반복되는 진리를 오늘 다시금 상기시키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역설적인 형식을 통해 이야기한다.







방지원-동해\_UNIVERSE를 만든 사람들

연희자·연출 방지원  
무녀 김동연 김동연



연주 정연락 손정진 전지환  
허무진 김동민 류재영  
김용성 민경문



음향감독 오영훈  
무대디자인 신나경  
오브제제작 정연락  
영상 우인제  
사진 김신중  
진행 모아모아 프로덕션  
PM 한지윤  
운영지원 박수경 박솔아

# 황민왕의 별신



# 황민왕

Hwang minwang

-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 이수자
- 국악방송 라디오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진행
- 음악그룹 나무, 블랙스트링 동인



타악연주자 황민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을 이수하였다.

타악 뿐만 아니라 아쟁, 구름에도 능한 황민왕은 타악을 비롯한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에서 두루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현재 음악그룹 나무와 블랙스트링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부터 우리 무속과 맞닿은 소재를 탐구하여 전통과 미래를 이어주는 새로운 굿을 완성하는 '이음굿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그가 펼쳐나갈 굿의 모습이 기대된다.

## Program

추운 날씨 만큼이나 마음이 쉽게 따뜻해지지 못하는 요즘이다. 이런 저런 걱정과 고난 끝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이다. 굿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도 좋다.'고 했다. 마음이 좋지 않으니 신의 이름을 빌려 마음을 돕히는 잔치를 마련 해본다. '각각'의 차가운 사정을 '우리'가 되어 따뜻하게 살피고, 공감과 위로가 굿을 통해 서로에게 닿기를 빌며 황민왕의 방식으로 특별히 모신 신을 만나 보는 무대를 선보인다.

- 1 청신악 남해안 별신굿에서 굿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신을 청하는 대금독주곡이다. 삼현육각 합주방식을 빌려서 독주곡을 합주곡의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 2 축원 남해안 별신굿에서 악사를 일컫는 말인 '산이'가 무장단으로 징을 치며 신의 내력을 읊고 축원을 올리는 내용이다. 공연 직전에 관객의 소원지를 받아 그 소원을 위한 축원을 풀어낸다.
- 3 선왕굿 한 가정의 가장 높은 신이 성주신이라면 선왕신은 배의 성주신이라 할 수 있다. 각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굿거리로, 남해안 별신굿의 진행 방식을 재구성하였다.
- 4 용선춤 본래는 망자를 위한 굿에서 망자를 태우고 극락으로 가는 배를 용선이라 칭한다. 오늘 공연에서 관객들의 저마다 소원을 태우고 그 소원이 닿는 곳으로 잘 도착하길 기원하는 굿으로 재구성 한다.
- 5 삼현 통영음악의 가장 중요한 선율을 포함하고 있는 통영 삼현의 음악을 기타와 베이스 연주로 편곡한 곡이다.
- 6 이음굿 연주자인 황민왕이 그동안 학습해왔던 각 지역의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 음악을 작곡하였다. 굿 음악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인 즉흥성과 현장성을 잘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 7 송신악 신을 잘 보내는 의미의 음악이다. 원래 굿에서는 청신악처럼 선율은 연주하는데, 이를 착안하여 청신악의 선율에서 악기군과 리듬을 편곡하였다.



황민왕의 별신을 만든 사람들

연희자·음악감독 황민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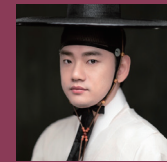
연주자

음악그룹 나무 (이아람 성시영 최인환)



김태영 김용하 박경민

배런 이준



특별출연

박준식 이수진



연출  
무대감독  
음향감독

김서진  
박기남  
박재식



# 2022 남산초이스

2022  
Namsan Choice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대와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  
남산초이스  
2022 NAMSAN CHOICE



